

특별기획

■ 정읍시·김제시·부안군,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미래동력·농업성장·문화관광·도시개발·행복기반 조성

“시민행복시대 열어갈 터”

김생기 정읍시장 밝혀

“백성과 함께 리먼 못 함께 없다...는 세종대왕의 큰 가르침, ‘여민가(與民可矣)’의 마음가짐으로, 12만 시민과 함께 ‘더 크고, 더 행복한 희망 정읍’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어 가겠습니다.”

김생기 시장은 지난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민선 5, 6기 정읍시정의 변치 않는 근간은 ‘시민과 함께’였다. 현정 중심의 각종 회의와 사업 현장에서의 정책 간담회, 상식과 원칙의 바탕 위에서 지속적으로 강화해온 소통행정 등이 대표적 예로, 이 과정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과 시민의 이해와 협력이 있다면 어떤 난관도 헤쳐 나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어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탕으로 역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서 최대의 성과를 이끌어 내겠다”며 “특히 동화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과 관련해 올해는 기필코 100% 관련 예산 확보를 관철시키고, ‘정읍인구 15만 회복’에 주력해서 인구회복의 발판이 될 철도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과 전북연구개발특구 활성화, 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분양과 내장산리조트 조성사업 등 현안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민선 6기 후반기에 맞는 올해는 5기와 6기 전반기 뿌려놓은 씨앗들이 알찬 결실을 맺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며 “올 한 해 시정의 운영 비전을 차

연이 품은 첨단도시, 시민이 미소 짓는 활력 정읍’으로 정하고 5대 벨트 추진 전략을 추진하는데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이 밝힌 5대 벨트는 미래동력과 농업성장, 문화관광과 도시개발, 행복기반 조성이다.

벨트별 방향은, 미래동력벨트로 미래 첨단과학기술의 선도 도시로 발전시키고 농업성장 벨트전략을 통해 정읍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전략이다. 문화관광 벨트 전략으로 정읍의 르네상스를 실현하는 한편 도시개발 벨트권 세부사업 추진으로 활력 넘치고 살고 싶은 매력 도시로 만들고, 행복기반 벨트사업을 통해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행복 복지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의지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소방서, 변산서 실종된 주민 신속 구조

부안소방서(서장 강동일)가 실종된 주민 신속하게 구조했다.

지난 8일 변산농장에서 근무 중 농장을 나가 뒷산을 오르 뒤 돌아오지 않아 미귀가자로 신고되어 부안소방서는 오후 7시부터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경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 마을주민이 동원돼 실종된 지역주민 김모 씨(59·여)를 찾아 나섰다.

부안소방서는 마을주민과 함께 김씨의 집을 중심으로 뒷산을 몇 차례 수색했으나 지역이 넓고 인력이 부족해 성과가 없자 그 다음날인 9일 본격적으로 소방공무원 20여 명, 의용소방대

원 30여 명 등이 찾아 나섰다.

9일 10시 30분경 마을주민에 의해 둔사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무전상황 인지 후, 인근을 수색하고 있던 의용소방대원과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수색대에 의해 둔사에서 발견됐다. 발견한 이씨는 부안소방서 변산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수색활동을 마친 부안소방서 관계자는 “오늘부터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 많은 걱정이 됐는데, 함께 한 수색대원들의 힘을 모아 구조해 다행이다”라며 수색대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새만금 중심도시 주도적 역할 수행”

김제시, 7대 역점시책 제시

김제시(이승복 시장관한대행)는 9일 언론인들을 초청해 지난 1년 시정성과 2017년 시정 운영방향에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승복 시장관한대행은 “여러분들은 시정의 주요업무와 현안사업 홍보를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갖게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며 시 출임기자단의 노고를 치하하며, 특히 지난해 녹록치 않은 국내외 상황 속에서도 새만금 중심도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고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자원봉사 대상 등 38개 부문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2017년에는 “시정방향을 ‘역동하는 김제 세계로, 미래로!’로 정하고 이를 위한 7대 역점시책으로 ‘새만금·해양 중심도시의 주도적 역할 수행’, ‘신산업기반 확충으로 탄탄한 지역경제 견인’, ‘중자산업과 첨단농업으로 농생명 허브 도약’, ‘김제 혼이 담긴 역사·문화·관광도시 육성’, ‘공감형 맞춤형 차별없는 행복도시 실현’, ‘안전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기반 확충’, ‘시민

의 역할을 키워주는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아갈것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핵심사업으로 “새만금국제 해양도시 기반 마련, 지평선산업단지 기업유치, 국제중자산업박람회 개최, 김제육교 재개설 추진, 용지 새만금특별관리지역 지정, 여성친화도시 확충, 명품교육도시 조성, 벽골제 발굴·복원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 지평선축제 글로벌화 등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에 오면 오복을 가득 받을 수 있어요”

김종규 부안군수, ‘부래만복(扶來滿福)’ 실현 최선

김종규 부안군수가 9일 2017년 정유년 군 출임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복을 누리고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의 땅’, 부안에 오면 오복을 가득 받을 수 있는 ‘부래만복(扶來滿福)’의 고장 부안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선 6기 부안 군정은 시작부터 ‘뺏속까지 부안정신’을 강조하면서 공직

의 일하는 분위기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순풍에 돛단 듯 심바탕 행정이 부안 군정에 자리 잡으면서 성과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특히 김종규는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인 국가예산 확보는 내날이 늘어 3년 연속 국가예산 4000억 원 시대를 열었으며 매년 수십 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수천억 원의 예산을 확

보했다”고 지난해 업적을 설명했다.

또 김종규는 부안군 나누미농장 학기금 300억 원 확보 시책은 어느덧 122억 원을 확보하면서 전 군민을 넘어 범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하여 지난 말 현재 매월 1만 원 이상 정기 후원하는 회원은 5400여 명으로 매월 6000여만 원의 장학기금이 자동이체 적립되어 올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대학 신입생 반값등록금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하천정비 77억 투입

정읍시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재해 예방 하천 정비에 77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시는 38억원을 투입해 제방 범람 위험이 있는 50개 하천 30km 구간의 하도준설 및 하천유지 관리사업을 펼쳐 하천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한다.

이와함께 15억원을 투입해 재해위험구간인 응동면 용오천과 감곡면 석정천 정비 등 모두 6개소의 지방하천(5.3km)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지방하천(6개소) 14km 구간에 대한 하천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전라북도 종합평가에서 지방하천 정비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내실 있는 하천정비사업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특히 시는 하천 정비에 대한 관심기장의 높은 관심을 기반으로 홍수 피해 예방 등의 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김제시보건소(소장 박래만)에서는 생후 12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던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을 24개월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3인 가구 월143만원)이하의 가정 2세미만 영아가 해당되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월 6만4000원), 조제분유(월 8만6000원)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가 알코올 중독이나 기타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조산·부자가정, 시설보호 아동처럼산모가 없어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영아에게도 지원이 확대된다.

구입은 G마켓이나 옥션 등 온라인 쇼핑몰이나 중소기업청등록 나들가게, 이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연장 되나, 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2015년 출생아는 별도로 신청해야한다.

박래만 보건소장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정부양곡 할인 확대 지원

저소득층 생활비 부담 경감

김제시는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경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산 정부양곡을 판매가격의 50%~90%로 공급하는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을 확대·추진하고 있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양곡할인 지원율은 기존 50%→90%로 확대하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차상위빈부담경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50%로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 20kg 1포 신청했던 가구는 20kg 1포 또는 10kg 2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0kg 포장단위는 1인 가구의 경우에만 연중 구매가 가능했으나,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연중 10kg 포장단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구당 양곡 월 구매량 제한도 폐지되어 가구원수 1인당 매월 10kg씩 구매가 가능, 2016년에는 5인 이상 가구 40kg까지 신청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5인가구 50kg, 6인가구 60kg로 구매할 수 있다.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 구입은 매월 초(1일~10일)까지 읍·면사무소 및동 행복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월 21일부터 말일까지 김제지

역차센터 희망나르미가 신청자에게 직접 배송하고 택배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NH농협 부안군지부 배인태 지부장 취임

“지역회화와 고객만족경영 그리고 실질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 더욱 발전하는 농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NH농협 부안군지부 지부장으로 배인태(52·사진)씨가 취임 소감을 밝혔다.

지난 1일자로 NH농협 부안군지부장으로 부임한 배 지부장은 “관내 농, 축협과 그리고 부안군과의 긴밀하고 폭넓은 협조를 통해 부안군 발전은 물론 군민과 농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도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배 지부장은 부안출신으로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부안=이옥수 기자



Advertisement for 'Jin'an Gogwon' (진안고원) ginseng products. It features a large bowl of ginseng soup, several bottles of ginseng juice, and the text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Republic of Korea Ginseng Special District Jin'an Gogwon) and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World Liquor Tasting Competition Gold Medal). The main product name '홍삼주' (Ginseng Juice) is written in large, stylized characters.